

기본모형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이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에서 개발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기본모형(案)에 대하여 2001년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41개 의과대학, 11개 치과대학 및 5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의견수렴 대상 및 회수율

구분	의과대학	치과대학	관련기관
대상	41	11	5
회신	24	6	3
회수율(%)	58.5	54.5	60.0

의견수렴 결과 요약

1.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추진 기본 모형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2. 도입희망년도

의과대학	찬성	반대	무응답·기타	전체
대학수	9	6	9	24
(%)	37.5	25.0	37.5	100.0

3. 의예과(의예학부) 출신과 학사학위자 입학 선발 비율

의과대학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무응답	전체
대학수	7	4	3	6	4	24
비율(%)	29.1	16.7	12.5	25.0	16.7	100.0

치과대학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무응답	전체
대학수	1	·	·	3	2	6
비율(%)	16.7	0	0	50.0	33.3	100

① 의과대학

의예·학사	0:100	50:50	70:30	80:20	85:15	90:10	무응답	전체
대학수	4	5	1	6	1	3	4	24
(%)	16.7	20.8	4.2	25.0	4.2	12.5	16.7	100.0

② 치과대학

치예·학사	80:20	55.6:44.4				무응답	전체
대학수	3	1				2	6
(%)	50.5	16.7				22.3	100.0

4. 그림으로 제시한 기본모형(567쪽), 변형1(568쪽), 변형2(568쪽)에 대한 선호

의과대학	기본모형	변형1	변형2	무응답	전체
대학수	4	2	9	9	24
(%)	16.7	8.3	37.5	37.5	100.0

치과대학	기본모형	변형1	변형2	무응답	기타의견	전체
대학수	1	0	1	3	1	6
(%)	16.7	0	16.7	50.0	16.7	100.0

주요 우려 사항

- (1) 의학교육에 대한 규제 심화 : 임상교육입문시

험, 임상교육종합평가시험, subintern 등을 의학전문대학원에 부과한다는 것은 현재보다 의학교육에 대한 규제가 더 많아질 위험이 있음.

(2) 전문대학원의 서열화 초래 가능성 : 입문시험(MEET)의 성격, 활용 방법에 따라 전문대학원 자체의 서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3) 의료비 상승 및 대학원 진학자 격감 : 전공의 수련과 학술학위과정의 병행을 금지한다면, 전문박사 및 학술학위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증가하여 간접적으로 의료비의 상승요인이 됨. 아울러 대학원 진학자가 격감할 것임.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기본 모형에서는 의예과(의예학부) 또는 일반 대학교육 2·3년을 이수하고 90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학 자율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비를 의예과 입학정원을 줄이면서 현 의예과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일부 입학정원이 작은 대학에서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4) 의예과 운영의 어려움 및 의예과 입학 경쟁 가열 : 현재 입학정원이 작은 대학(예, 50명 이하)의 경우에는 입학정원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의예과를 존속한다고 할지라도 그 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이며, 의예과 입학을 위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임.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기본 모형에서는 전문대학원 지원자격을 '의학(치의학)교육 입문시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로서 대학 학부교육 2년 이상을 이수하고 90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지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 자율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자율로 지원자격을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자의 대학간 이동(의예·치의예과 포함)을 완전히 자유화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5) 지방대학의 침체 및 몰락 가능성 : 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대학 2년 이상 90학점 이상 이수자로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우수학생들(의예·치의예과

포함)이 서울 및 수도권외 전문대학원으로 이동할 것임.

(6) 대학간 편입학 심화 : 학부 2·3학년 학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각 대학의 재학생 수에 공백이 발생하여 대학간 편입학이 심화될 것임.

(7) 대학내 학과간 서열화 및 자연계 대학의 저항 : 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대학내 학과간 서열이 매겨질 수 있으며, 학부교육의 왜곡에 따른 자연계열 교수들의 저항이 클 것임.

(8) 일반대학 학부교육의 왜곡 및 입시준비 기관화 : 일반대학 학부 2·3학년에서 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입문시험(MEET)을 준비하게 됨으로써 학부교육이 왜곡되거나 입시준비 기관으로의 전략화 가능성이 있음.

주요 질문 사항

- 학위 수여 조건으로 논문제출 의무화 여부.
- 학부 2·3학년을 이수한 학생(의예과 포함)이 타 대학의 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지 여부.
- 의예학부를 만들 경우 현재의 의예과 정원보다 많은 수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지 여부.
- 입문시험의 응시횟수를 제외할 것인지 여부.
- 의예과 학생 중 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진로 문제.
- 동일 대학의 의예과·의예학부로부터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비율문제.
- 임상입문자격시험, 임상교육종합시험 등이 국가 시험인지 대학자율 시험인지 여부.
- 전공의 수련 후 학술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
- fellow가 학술박사학위과정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전문대학원 전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며, 기간 내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의 대책은.